

강진군, 농특산물 직거래 매출 218억 원... 전년 대비 193% 상승

2017년 79억 시작 2018년 115억·2019년 123억으로 해마다 매출 상승 온라인 생화 판매 정착·체계적 고정고객 관리·로컬푸드 직매장 성공

강진군이 올해 11월까지 농특산물 직거래 매출 218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13억) 대비 매출액이 193% 증가한 수치이다. 강진군은 2017년 직거래 매출 79억 원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15억, 2019년 123억으로 해마다 매출이 상승했다. 특히 올해는 11월을 기준으로 매출 218억 원을 돌파했다. 이 같은 성과는 민선 7기 핵심 공약 사항인 농가부가가치 육성을 위해 유통 중심의 직거래 판매 활성화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분석된다. 군은 특히 농특산물 주요 소비처와 유통거리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택배를 이용한 소비자 직거래 판매 추진과 구입고객에 대한 체계적인 D/B 관리로 평생 고객화에 힘써왔다. 2019년부터 농특산물을 구입한 택배 고객을 지역·구입품목 등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해 현재 12만 명이 넘는 고정고객 D/B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농특산물 홍보나 구입 감사 서한문 발송에 적극 활용해 직거래 판매 기반을

로 삼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화훼 재배단지와의 연계한 온라인 직거래 판매를 도입해 올 한해에만 총 매출 8억 원을 올리는 쾌거를 거뒀다. 생화리는 특성상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온라인 직거래 판매를 선도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8월 29일 정식 개장한 강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도 고공행진 중이다. 개장 초기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출발한 강진농협 로컬푸드는 현재 326농가가 출하해 650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유통과정을 최소화해 그동안 판매에 불리했던 소규모 작물 재배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실질적인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평이다. 매출 역시 빠르게 성장하면서 11개월간 25억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민선 7기 공약 사항으로 추진한 직거래 활성화와 강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빠르게 자리를 잡으면서 농어가 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군에서도 체계적인 고정고객 DB 관리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에 노력



강진=김영일기자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고객관리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강진군 직거래 판매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기초생활분야 우수 지자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장흥군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기초생활보장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우수지자체로 선정에 따라 장흥군은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받았다. '2020년 기초생활보장사업평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포상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속적인 제도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

신규수급자 발굴노력·기초생활보장예산 집행실적 등 종합 평가 기초생활보장제도 20주년 유공 김인식 팀장 국무총리 표창도

신규수급자 발굴노력도 ▲기초생활보장예산 집행실적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예산 집행실적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긴급복지 집행 실적 등 제도 운영 및 업무 협조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 것이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20주년 유공 공무원으로 장흥군청 주민복지과 김인식 복지조사팀장이 포용적 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한 공으로 지난 11월 11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경사가 이어지고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업무까지 추

진도군, '진도읍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본격 추진

총사업비 481억원 투입

진도군이 진도읍 일대의 상습침수를 막기 위해 '진도읍 해창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진도읍 남동-포산 주변 저지대는 지난 2012년과 2019년 태풍의 영향으로 큰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매년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의 우려를 안고 있었다.

이 곳은 매년 장마철 때면 하천수위 상승으로 주택, 농경지, 도로 침수

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진도군은 진도읍 일대의 침수피해 방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전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정부로부터 지난 4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 2025년까지 총사업비 481억원을 투입, 침수예방을 위한 사면정비사업 등을 추진한다. 사업 규모는 ▲교량 재가설(3개소) ▲호안정비(길이 4.4km) ▲하천부지·고수부지 정비 ▲산책로 조성 등을 실시한다.

진도=조상용기자

장흥군, '장동배수지 신설' 안정적 수돗물 공급

장흥군은 장동면 일대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180톤 규모의 배수지를 신설해 장동면 11개마을 352수용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당초 광역송수관에서 직결로 연결하여 공급을 하고 있어 광역상수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우려가 컸었는데 이번 배수지 신설로 단수 없는 안정적인 물 공급이 실현된 것이다. 또한, 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한 상방이마을 15가구에 상수관을 연결하여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 받을 수 있는 물 복지 실현에 기여했다.

장동면 상방이마을 이장은 "이상기후로 인해 지하수가 부족했는데 이번 배수지 신설로 인해 우리마을까지 상수도가 보급되어 이제 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며 장흥군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광역상수도에서 배수지를 거치지 않는 직결급수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 어렵다. 앞으로 배수지를 더욱 확충하여 주민들이 마음 놓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완도군, 2021 해맞이 행사 전면 취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결정

완도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1 정정완도 해맞이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다도해의 빼어난 풍광과 일출을 자랑하는 완도 해맞이 행사는 매년 1월 1일 완도타워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군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고자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완도타워는 전면 폐쇄될 예정이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해맞이 행사도 모두 취소된다. 완도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 체크소를 운영한 데 이어 지난 10월부터는 관내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비 접촉식 체온계, 손 소독제, 출입 명부 등을 배부하고 '정정완도 저인망식 생활방역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완도=김광수기자

해남군 북일지구 농업용수 부족 해결

수계연결사업 국비 353억 확보

해남군은 농업용수가 부족해 매년 가뭄피해를 겪고 있는 북일지역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계연결사업을 위한 국비 353억원을 확보했다. 위치상 두툼산 우측에 위치하고 있고, 평야지대로 이루어진 북일면은 저수지를 신설할만한 부지가 없어 그동안 소규모 저수지와 관정만을 사용해 농업용수를 공급해 왔다. 이에 군은 여유수량이 풍부한 고천암호의 물을 관로를 통해 북일면으로 공급하는 수계연결사업을 추진, 이번

국비확보로 오랜 숙원을 해결하게 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양수장과 17km의 송수관을 매설해 북일면 운전저수지와 신월저수지, 만수저수지 등 3개 저수지에 용수를 공급하게 된다. 500만㎡에 이르는 고천암호 농업용수를 북일지역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북일면 일원 942ha 농경지에 항구적인 가뭄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업은 2025년 완료될 계획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기동취재본부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